



스타PD들 '자유' 찾아 훨훨~

“#지상파 예능은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콘텐츠로서 품위를 지켜야 하는데, 유튜브를 들면 온갖 술방 콘텐츠와 19금 토크가 난무하죠. 자극적인 콘텐츠 사이에서 눈길 끄는 게 쉽지 않아요.” (지상파 예능국 출신 책임 PD B씨)

한 회사에서 20여년간 몸담았던 A씨와 B씨는 지난해 함께 회사를 나와 새로 설립한 예능 제작 스튜디오로 소속을 옮겼다. 방송사에 발이 묶여있던 것보다, 스튜디오로 소속을 옮기는 것이 여러 방송사 및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에 유통할 콘텐츠를 제작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28일 방송가에 따르면 예능 PD들이 방송사를 떠나 소규모 제작사인 레이블을 차리거나 독립된 제작사로 옮기는 사례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지상파에서 비교적 제약이 덜한 종합편성채널이나 케이블 채널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가 잦았다면, 유튜브, OTT 등 예능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는 플랫폼이 많아지면서 최근에는 방송사에서 스튜디오로 가는 것이 예능 PD들의 주된 흐름이다.

KBS 출신 나영석 PD는 CJENM으로 이

유튜브·OTT 등 플랫폼 다양 제작 자유로운 스튜디오 이적 OTT 협업·글로벌 진출 용이 방송사들 인력 유출 골머리

적했다가, CJENM 스튜디오스 산하 레이블인 제작사 에그이즈커밍으로 소속을 옮겼다. 방송사 소속 PD로서의 제약에서 벗어난 나 PD는 이제 더 다양한 플랫폼의 성격에 맞춘 프로그램들을 선보이고 있다.

구독자 수 약 633만 명을 거느린 유튜브 '채널심야야'에서 각종 예능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고, '나영석의 나불나불'이라는 채널을 통해 라이브 방송까지 시도하고 있다.

MBC '무한도전'을 연출한 김태호 PD는 직접 스튜디오를 차려 활약 중이다. 제작사 TEO를 설립한 후 방송사 ENA와 tvN에서 각각 예능 '지구마블 세계여행' 시리즈, '댄스가수 유랑단'을 선보였다.

방송사뿐 아니라 다양한 OTT와의 협업도 훨씬 용이하다.

레거시 미디어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국내

시장에 머물지만, OTT를 통한다면 글로벌 시장 진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PD들 입장에서 훨씬 다양한 시청자층을 만나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대표적으로 TEO에 합류한 정종연 PD는 넷플릭스에서 '데블스 플랜 시즌2', '미스터 리 수사단' 등을 공개할 예정이고, C1 스튜디오를 설립한 '도시어부', '강철부대', '최강야구'의 장시원 PD는 넷플릭스에서 '최강력비'를 선보인다.

이렇듯 기획·연출 역량을 입증한 PD들이 줄줄이 몸값을 높이며 이적하다 보니, 방송사들은 인력 유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방송사들이 이전과 같은 힘을 발휘하는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는 콘텐츠 제작사들이 방송사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우위에 있다”며 “앞으로도 능력이 되는 예능 PD들은 스튜디오로 옮겨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SBS는 국내 방송사 중 처음으로 예능 콘텐츠 제작 전문 스튜디오 '스튜디오 프리즘'을 설립했다. 여기에는 SBS 예능 PD를 포함한 예능본부 직원 전체가 옮겨가 예능본부가 하나의 제작 스튜디오로 전환한 셈이 됐다. /연합뉴스

고부 사이된 김희선·이혜영

MBC '우리, 집' 다음달 첫선

배우 김희선과 이혜영이 주연하는 MBC 새 드라마가 내달 중 시청자들을 만난다.

MBC는 새 드라마 '우리, 집'을 내달 24일 밤 9시 50분 처음 방송한다고 26일 밝혔다.

'우리, 집'은 대한민국 최고의 가정 심리상담의인 노영원이 정제 모를 협박범에게 자

신의 커리어와 가정을 위협받게 되면서 추리 소설 작가인 시어머니와 공조해 가족을 지키려는 이야기를 담은 휴먼 블랙코미디다.

김희선은 대한민국 최고 가족 문제 심리상담의이자 국민적인 사랑을 받는 노영원 역을, 이혜영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산 노영원의 시어머니 흥사강 역을 맡는다. /연합뉴스



이혜영

김희선

제 69회 호남예술제 입상자-성악

〈심사위원〉

김미옥 (전. 광주대 교수)
김선희 (조선대 교수)
김철웅 (목포대 교수)
이경은 (광주음협 회장)
홍승연 (광주교육대 교수)

◇ 초등부 1,2학년

▲ 최고상
22 김새하 (월계초2)
▲ 금상
28 박재이 (광주삼육초2)
30 박태호 (살레시오초1)
▲ 은상
4 김도윤 (목포영산초2)
7 이로운 (광주삼육초1)
10 박가을 (무안행복초2)
12 함라엘 (무안행복초2)
17 김가은 (살레시오초2)
18 정하진 (광주송원초2)
35 최리원 (선운초2)
37 조이안 (불로초2)
44 문예린 (수완초2)

▲ 동상

8 최예슬 (남양초2)
9 홍율리 (만호초2)
11 김범준 (살레시오초1)
19 정윤하 (양지초2)
33 정예린 (MOPSG1)
34 이준우 (태봉초1)
38 이도원 (수완초1)
42 박연아 (수완초2)
43 이하담 (살레시오초1)
45 최주안 (만호초2)
◇ 초등부 5,6학년
▲ 최고상
14 한마음 (문산초5)
▲ 금상
3 최시안 (광주송원초6)
9 김지후 (광주송원초5)
13 유리아 (광주송원초6)
▲ 은상
1 류영준 (광주송원초5)
4 추정우 (광림초5)
5 이수빈 (살레시오초5)
7 김민교 (수완초5)

8 김규아 (광주효덕초5)
10 정희진 (살레시오초5)
▲ 동상
2 정태이 (광주삼육초5)
6 천세현 (광주송원초5)
11 김윤하 (광주송원초5)
12 이서인 (운리초5)

◇ 중등부 1,2학년

▲ 금상
1 알리모리나 (광주예술중2)
▲ 동상
3 주현서 (유덕중1)
7 문세빈 (광주예술중2)
◇ 중등부 3학년
▲ 최고상
4 양채린 (수완중3)
▲ 은상
3 이다니엘 (월광기독교교3)

※ 장려상 입상자는 호남예술제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하이브 갈등'이 드러낸 K팝의 그늘

멀티 레이블 체제 권력 투쟁 민낯... 경영권 침탈·배임 의혹 등 수사

뉴진스가 소속된 여도어의 민회진 대표와 모회사 하이브 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민 대표의 파격적인 기자회견을 계기로 가요계를 넘어 사회적 관심사로 확산했고, 양측은 서로를 향한 고소·고발 난타전을 예고한 상태다.

가요계에서는 사태의 원인인 '배임 의혹'과 '주주 간 계약 갈등'의 기저에 하이브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멀티 레이블 체제의 파열음이 있다고 보고, 이를 해결해야 K팝 산업이 한층 성숙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이브는 빅히트뮤직(방탄소년단·투모로우바이투게더), 플레디스(세븐틴·프로미스나인·투어스), 쏘스뮤직(르세라핌), 어도어(뉴진스), 빌리프렘(엔하이픈·아일릿), KOZ(지코·보이넥스트도어) 등 여러 레이블을 거느리고 있다. 자회사 격인 각 레이블이 음악 등 콘텐츠 제작을 전담하고, 홍보(PR)·법무 등 일부 공통 기능은 모회사 하이브에 모여 있는 구조다.

그런데 민 대표는 르세라핌 데뷔 과정에서 충돌(쏘스뮤직)이나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따라 했다는 주장(빌리프렘) 등을 가감 없이 공개해 일부 레이블 간 갈등을 물 위로 끌어 올렸다. 민 대표는 뉴진스가 하이브의 첫 걸그룹인 것으로 알고 쏘스뮤직 출신 연습생 민지 등과 함께 준비했지만, 아이즈원 출신 사쿠라·김재원을 영입한 르세라핌에 데뷔 순서가 밀렸다고 주장한다. 쏘스뮤직에 있던 연습생을 어도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위로금 20억원을 지급한 점과 민 대표가 제작했음에도 어도어의 지분 100%를 하이브에 준 점도 불만 요



박지원 하이브 CEO(왼쪽)와 민회진 어도어 대표.

소로 지목했다.

하이브는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 측이 '노예 계약'으로 문제 삼은 '풋옵션'(주식을 특정 가격에 팔 권리) 문제도 해결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의 직접적 원인이 된 민 대표의 '경영권 침탈'과 배임 의혹 등은 하이브의 고발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시비가 가려지게 됐다. 민 대표도 하이브 측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주술 경영' 의혹을 제기한 하이브를 겨냥해 "개인 사찰"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가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하이브 측을 고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

